



**CRYCHEESE
BURGER**

크라이치즈버거 브랜드 소개서

01 — 크라이치즈버거



2013년, 부천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크라이는
지금 수도권의 9개 매장과 다양한 대학·기업·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장의 한 끼부터 수백 명이 함께하는 행사까지,
우리가 만나는 장소와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좋은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순간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햄버거지만,
그 안에 담고 싶은 것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02 — 우리가 걸어온 길

12평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습니다.

2013년, 테이블 4개가 전부였던 12평짜리 작은 매장.
자본금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오직 '맛' 하나로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2020년 56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6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특별한 마케팅보다 좋은 음식과
한결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했고,**
그렇게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크라이치즈버거는
지금까지 한 걸음씩 성장해왔습니다.



03 — 우리가 일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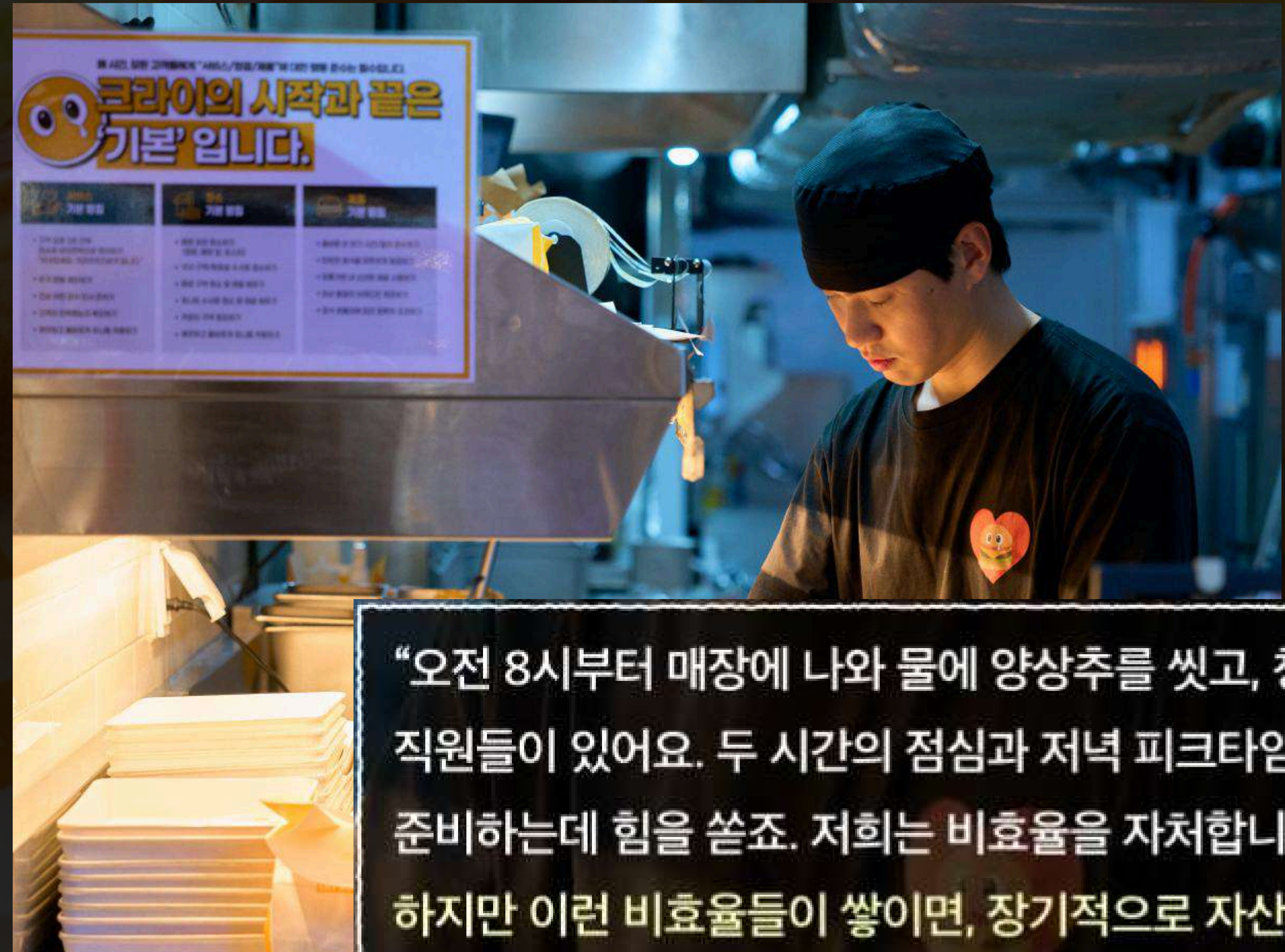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매일 아침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라이치즈버거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냉동 야채를 쓰면 더 편할 것을 직접 씻고 다듬고,
조금 더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일들을 남겨둡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음식의 맛과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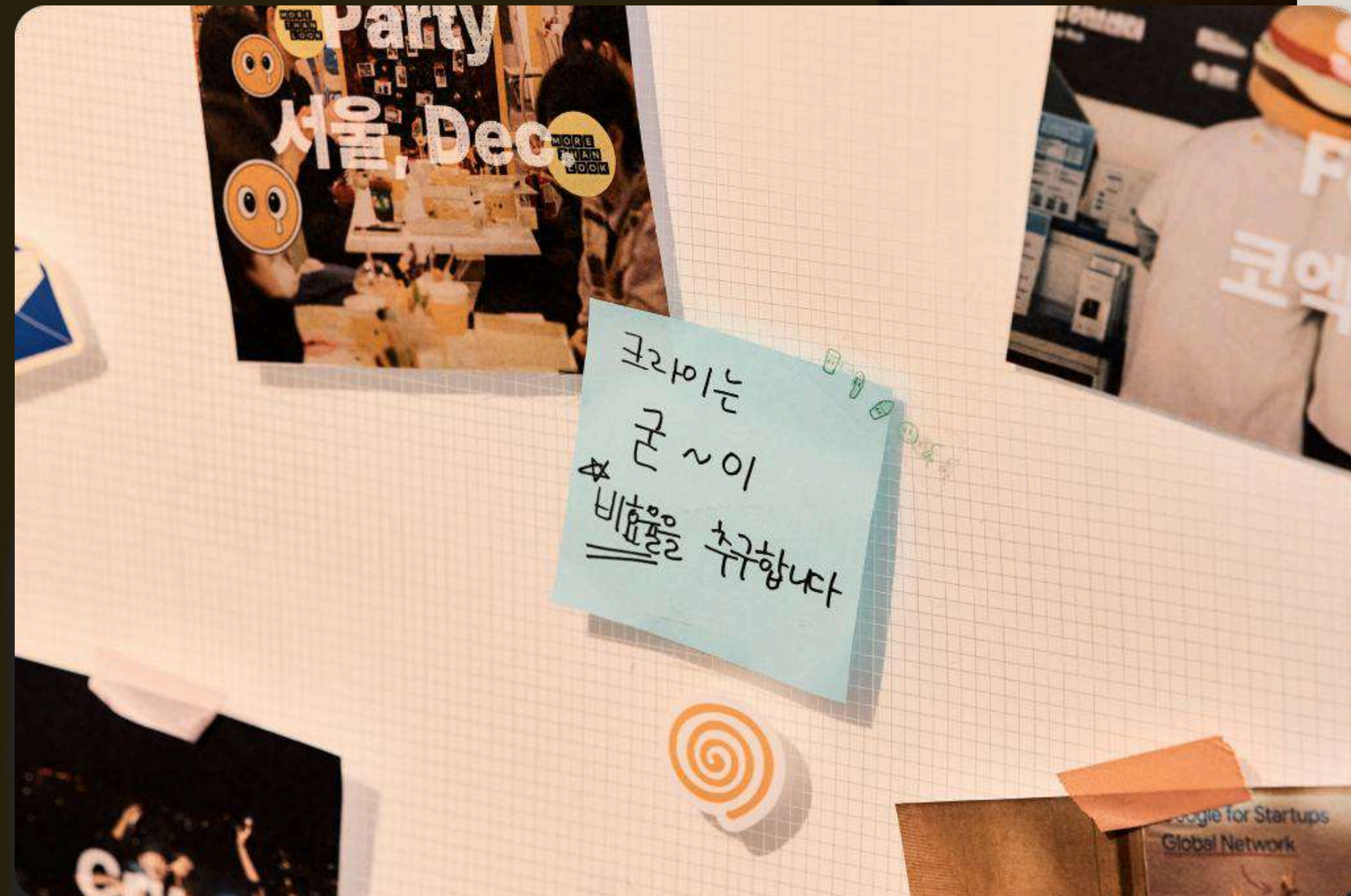
“오전 8시부터 매장에 나와 물에 양상추를 씻고,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두 시간의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죠. 저희는 비효율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효율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자산이 되고
더 큰 효율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라이치즈버거 백종옥 점장-

04 — 성실함의 복리

저희는 성실함에도
'복리'가 붙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양상추를 씻는다고 내일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대중들이 모를거라고요?
천만에요”

크라이치즈버거는 빵의 수분 함량이 조금만 달라도,
패티의 온도가 미세하게 낮아도 전량 폐기합니다.
또한, 원재료를 아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재료를
쓰고자 노력합니다

5 — 우리가 만드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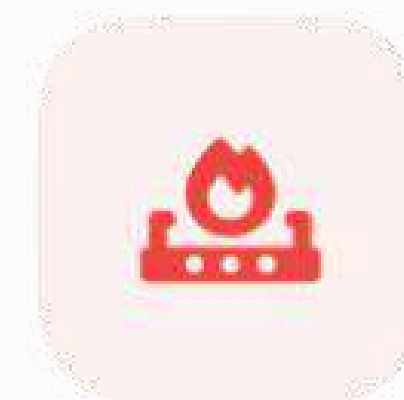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한 채소와
주문이 들어온 뒤 조리하는 패티.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가장 맛있는 상태로 한 끼를 전하고 싶습니다.



촉촉한 버터번

퍽퍽한 빵이 아닙니다. 버터 향 가득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버터번으로 제작합니다



100% 오리지널 패티

모든 패티는 직접 만들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조리합니다.



당일 손질한 신선한 야채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손질한 토마토와 양상추
숨이 죽지 않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06 —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

"햄버거를넘어,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영어가 서툴러 외롭고 힘들 때
한 타코 가게 주인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How are you?"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햄버거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배달 봉투에 적은 짧은 편지 한 줄로,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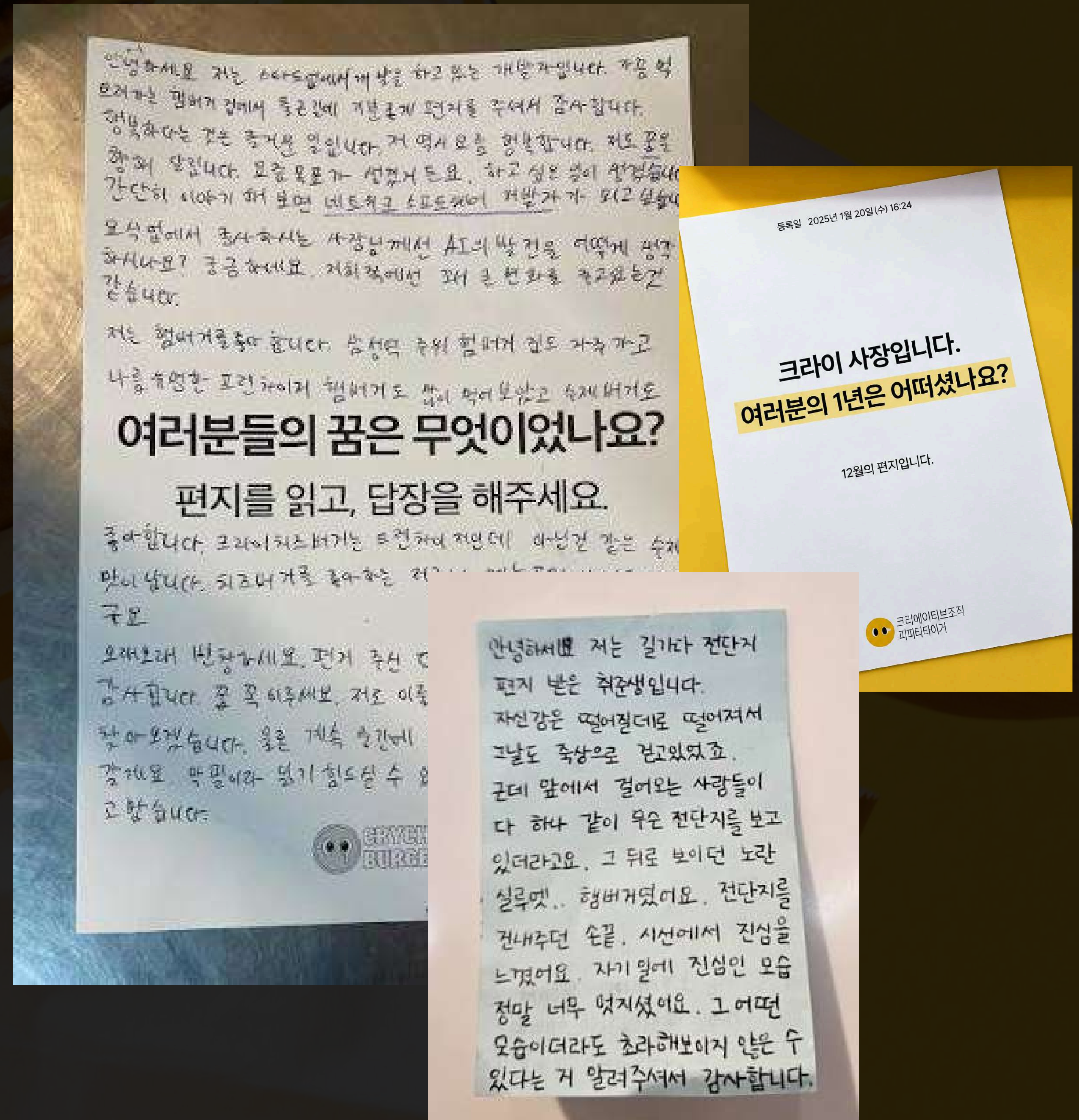
07 — 마음을 전하는 방식

그래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매장에서는 매달 새로운 편지를 준비하고,
단체주문을 할 때는 행사와 사람에 맞는 편지를 함께 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장에서 건네는 한 장의 편지로,
누군가에게는 행사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람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08 —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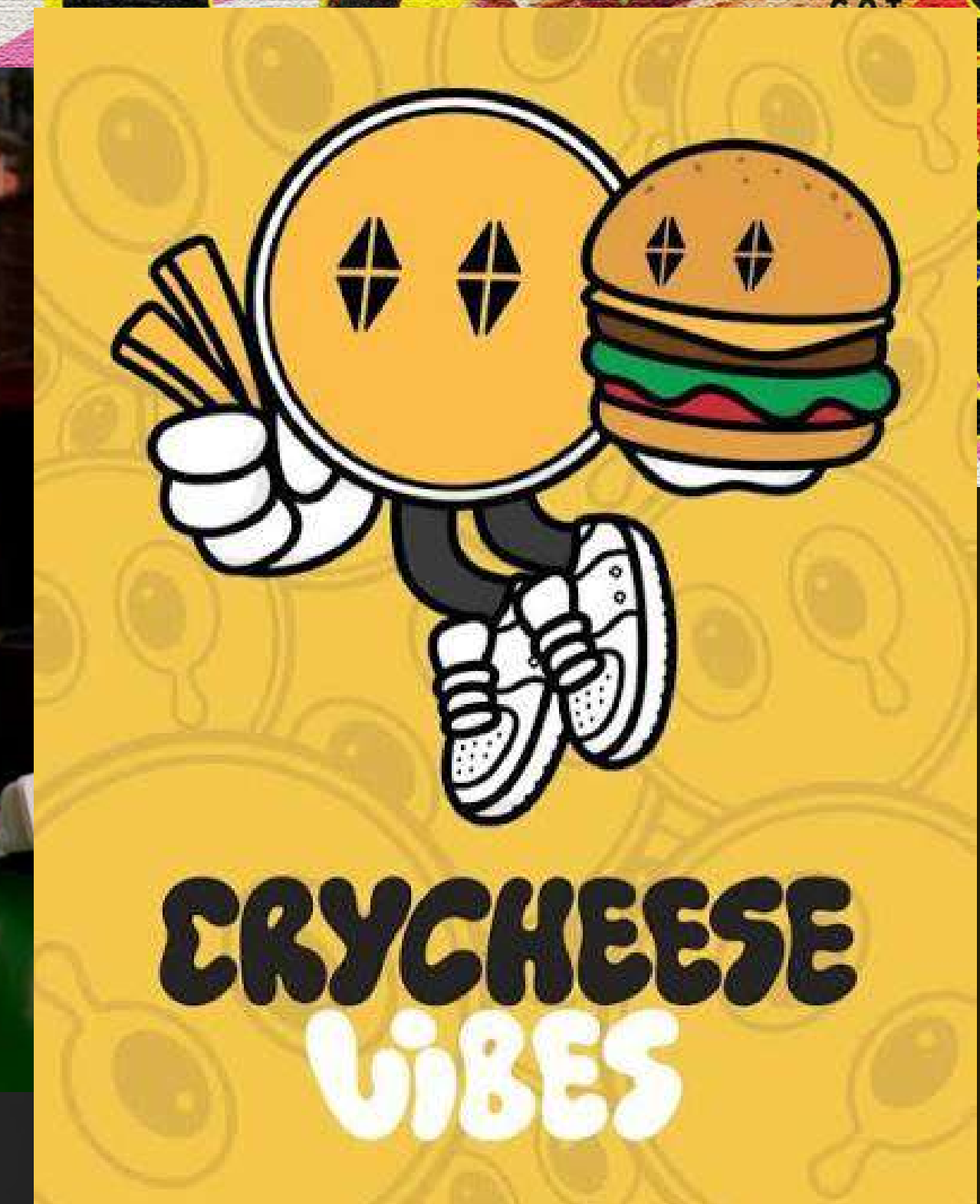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슈퍼스타는 없어요."

유명한 사람만이 주목받는 무대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디 뮤지션, 캐릭터 작가, 아티스트,
그리고 크라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화입니다.



09 — 함께하는 단체주문

크라이의 일은 매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한 끼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먹는 한 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이는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대학 행사부터 채용설명회, 타운홀, 컨퍼런스
세미나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 함께한 고객사



SAMSUNG



42개 대학, 229개 기업, 2,264개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크라이치즈버거가 함께했습니다.



**CRYCHEESE
BURGER**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한 장의 편지를 준비하는 일까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에, 크라이치즈버거가 함께하겠습니다.